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 60년 만에 걷는다

서울시-영국대사관, 대사관으로 막혀있던 170m 중 시 소유 100m 개방 합의

1959년 영국대사관 점유 이후부터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170m 중 시 소유 100m(후문~직원숙소) 구간이 시민이 걸을 수 있는 길로 개방된다. 60년 만에 통행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영국 대사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이 합의, 대사관 경내 돌담길 100m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방이 목표이다.

단절된 돌담길 170m는 대사관 정문부터 후문 까지다. 이중 70m(정문~직원숙소)는 대사관 소유로 1883년 4월 19일 영국이 매입하였고, 나머지 100m(후문~직원숙소)는 서울시 소유로, 1959년 대사관이 점용허가를 받아 췰대문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점유해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이다.

서울시는 '14.10월,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영국대사관에 제안하였고, 그해 11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사관을 방문해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전 주한영국대사와 함께 단절된 돌담길을 둘러보았다. 양측이 개방의 필요성과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같이한 결과, 개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양해각서를 '15.5월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서울시와 영국대사관은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영국대사관은 이 지역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안문제를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국대사관은 방문객과 영국인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이들의 안전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조사·평가하는 등 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왔다.

영국 외무부에서도 업무빌딩 1층을 통과하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대사관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5.10월 보안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서울시는 영국 보안 전문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대사관 직원의 안전과 근무 환경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협의했다.

수개월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끝에, 영국대사관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업무빌딩 하부 공간(1층 필로티)을 이용한 대사관 소유 70m 구간 개방은 업무빌딩을 보강하더라도 보안이 취약해져 곤란하지만, 서울시 구간 100m는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6일 돌담길 170m 중 경내 서울시 소유구간 100m를 반환받기로 최종 합의하였고, 현재 영국대사관은 경계담장 재설치 및 후문 이설 등 반환을 위한 설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개방 예정인 100m 구간에 대한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다. 영국대사관의 토지 반환, 후문·경계담장 등의 설치와 동시에 보행로 조성에 들어갈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17년 8월 개방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돌담길은 문화재청에서 복원을 추진 중인 '고종의 길' 110m와 연결된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협의해 과거 회극문이 있던 덕수궁 담장에 출입문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문을 통해 덕수궁에 들어온 시민들이 궁을 둘러보고 돌담길을 이용해 '고종의 길'이나 덕수초등학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영국대사관 업무빌딩의 안전을 감안하여 대사관 소유 70m의 개방이 이번에는 제외되지만, 가능한 개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시와 영국대사관은 상호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가운데 덕수궁 돌담길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6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덕수궁 돌담길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역사성을 회복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소영길·장충단로 일대 특색 간판으로 새 단장

조선시대 어영청 분소인 남소영터가 있는 남소영길과 족발거리로 대표되는 장충단로 일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노후간판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소영길과 장충단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일 오후 5시 장충동 주민센터에서 간판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업구간은 남산국립극장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장충단공원과 동국대학교 후문, 장충체육관 등 장충동 대표 명소 지역이다.

국내 최고 제과점인 태극당 맞은편으로 있는 장충단 골목도 이 일대이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으로 130개 점포의 간판은 수차례의 디자인 심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우수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교체됐다.

가로에 나와 있거나 돌출된 간판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고 간판뿐만 아니라 창문과 출입구 등에 어지럽게 부착된 광고물을 깔끔히 정리했다.

올 겨울 희망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마포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 겨울 지역사회에 나눔온도를 높여 줄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온정으로 모인 기부금품은 나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모두 10억6천여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려 뜨거운 이웃사랑을 보여줬으며 관내 저소득 2만1천여가구를 지원했다.

올해 모금 방식은 마포구 복지행정과 사무실 및 16개 동주민센터에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접수 창구를 운영해 이웃돕기 후원 성금품을 접수받는다.

구는 사업이 진행되는 3개월간 활발한 모금활동 전개 및 민관자원을 적극 투입,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지역 내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에 기부 동참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까지 ㈜효성, KT&G 복지재단 등의 기업과 마포구새마을부녀회 등 지역단체들과 함께 경제적 사정으로 김장하기가 쉽지 않은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4만KG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해 4천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12월엔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월동기 방한물품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지역자원과 연계해 쌀 나누기 행사,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 및 기업은 주관 부서인 복지행정과 또는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성금기부는 온라인계좌(015-176590-13-526,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를 통해서 접수 받으며,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기간 중 기부된 성금과 물품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연중 지원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희망온돌 사업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동되는 만큼 많은 구민과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행정과(02-3153-8833)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 중구, '문화·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새 단장

해외 방문객의 77% 이상이 찾는 서울 중구, 중구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중구 문화·관광 다국어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우리말과 영어·일어·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www.junggu.seoul.kr/tour)를 새롭게 개편하고 14일부터 서비스한다.

홈페이지는 ▲추천관광 ▲관광지 ▲음식·숙박·쇼핑 ▲문화·역사 ▲여행가이드 ▲참여마당 등 6개 메인메뉴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새 단장한 '중구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추천관광' 코너를 개설해 자유관광객들의 참여와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했다.

추천명소를 카테고리 별로 볼 수 있는 '여행기사'는 전문여행작가가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고 찍은 사진과 스토리텔링을 곁들여 소개한 여행답사기로 마치 전문여행작가 블로그를 방문한 듯하다. 외국어 지원도 가능해 최근 자유여행으로 방문하는 외국관광객들이 블로그나 모바일 정보에 의존하는 패턴을 반영했다.

메인화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설사투어', '테마여행', '즐기는 중구', '식도락 여행' 등은 중국 관내 문화재, 숙박, 문화공간, 맛집, 전통시장, 쇼핑 등을 테마별로 엮어 방문객들의 선호유형에 맞게 관광상품화한 콘텐츠이다.

특화된 관광코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 '이벤트 참여 게시판' 등을 마련해 온·오프를 연결하고 소통과 참여형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처럼 다양해진 문화관광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고려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서비스한 점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를 위해 구글지도 위치기반 서비스와 정보검색 서비스, 관광콘텐츠와 연관된 주변 정보 등도 업그레이드해 제공하고 있다.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중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 2001년부터 구축해 중구 내 관광코스와 역사 유적지, 문화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4명 중 3명이 중구를 거쳐가는 만큼 주요명소와 중구의 관광정보를 최근 여행패턴에 맞게 다국어 모바일형 홈페이지로 소개해 내·외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마음 문 두드리기

강동구 '자녀와 소통과 공감' 주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올해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소통과 공감 교육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0월 26일 개강하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코칭형 아버지 되기 ▲자녀의 마음을 여는 사랑의 대화법 ▲비폭력공감대화-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아동청소년 발달 이해와 소통법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신감 ▲알파고시대 교육, 부모 역할과 미래전망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지원과(전화02-3425-520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 소통, 공감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